

진안홍삼축제 10만명 다녀갔다 소 럽피스킨병 유입 차단 총력

실무추진단 결과보고회 개최... 지역경제 파급효과 약 58억원 추산

진안군은 지난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열린 2023 진안홍삼축제가 3일간 10만여명이 방문해 약 58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군은 지난 25일 군청 강당에서 2023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강당에서 2023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종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진안군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이 단원으로 구성돼 홍삼축제 개최를 이끌고 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단원들이 담당 임무의 결과를 보고하고, 축제 개최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진안홍삼축제는 예년보다 빠른 9월에 진행돼 3일간 1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특산품을 구매하고, 지역 음식점을 방문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58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마이산북부 광장을 중심으로

산약초타운부터 가위박물관까지 마이산 북부 전역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통로를 이원화해 동선을 확보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사고 발생 없이 마무리됐다는 긍정적인 총평이 나왔다.

이어 보고회 참석자들은 실제 운영에서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 개선사항으로는 프

로그램 운영 시간 준수, 새로운 대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나왔다.

김종필 부군수는 "축제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 행사 운영과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드린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년 축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방역대책본부 구성 24시간 비상체계 유지·방역활동 강화

장수군이 지난 20일부터 충남·경기 지역의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럽피스킨병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부안군 백산면 소재의 한우농가에서도 럽피스킨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충남·경기 등 서해안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럽피스킨 병은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과 피부 결절이 나타나 유량감소 등의 임상증상과 함께 가축 손실, 국제적 거래금지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전염성 질병이다.

특히 이 병이 흡혈 파리, 모기, 진드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거나 오염물질에 의해 전파됨에 따라 군은 관내 럽피스킨 병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긴급 '렙피스킨 병 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보건의료원 회충 방제 분무 소독 차량과 축협 공동 방제단 소독 차

량 5개 반을 동원해 소 사육 농장 내 모기, 진드기 등 흡혈 곤충 구제 및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소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장 주변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럽피스킨 병이 발생한 20일부터 장계 우시장을 폐쇄,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안내 문자를 통해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군동 축산과장은 "소 사육 농가에서는 럽피스킨 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 소독과 해충 방제에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의심 증상이 관찰되면 즉시 방역당국(1588-9060)과 장수군 축산과(063-350-2426)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일제 맞서 항거한 순국선열 호국정신 기려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6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 거행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6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가 26일 진안군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추모제는 일제에 맞서 항거한 순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12일에 개최되고 있다.

호남의병창의호국제전위원회(위원장 오귀현)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제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군의원, 손순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제전위원회 회원과 군부대 장병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창의동맹을 맹세한 안약인 동맹늬사 낭독과 경과보고, 헌화, 추모사, 제35사단 군악대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호남의병 창의동맹단은 1907년 9월 12일 정재 이석용 의병장을 중심으로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지의 1,000여명의 의병들이 진안 마이산 남부 용암에 집결하여 제단을 쌓고 의병을 거병한다는 고전제를 올려 만방에



호남의병 창의동맹단 결성 제116주년 기념 호국제전 추모제가 26일 진안군 마이산 남부 호남창의동맹단 의병 위령비 앞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고하고, 일제 침략에 맞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의병조직 동맹 결성을 결의했다.

이는 호남 최초의 의병활동으로 1909년까지 진안과 정수, 임실, 전주 등지에서 줄기차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알리고 의로운 기상을 떨쳤다.

전춘성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일제에 맞서 불굴의 투쟁을 벌인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추모제가 선열들의 거국적인 항일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 숭고한 가치와 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가도록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사협, 우리집 클리어 2차 사업 추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진홍) 지역복지분과는 지난 26일 실천면 중증 시각장애인 가정 방문해 '우리집 클리어(주거환경개선) 2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이 의뢰하고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분과 소속 기관들이 연대해 집 안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진행했다.

하각구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분과장(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은 "해당 가정에 거주하는 분은 시각장애가 있으신 독거 어르신으로 제대로 집안 정리가 안 된다 보니 위생이나 안전 등 여러 부분에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며 "앞으로 해당 가정에 대한 대청소는 물론, 폐기물 처리와 방역, 이불 빨래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산림소득분야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진안군은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산림소득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춘성 군수와 임업후계자협회, 임산물 작목반 등 임업 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해 임산물 생산·가

공·유통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림소득 분야의 소득증대 및 지원과 새로운 정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진안군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통해 산림소득 분야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관내 임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림소득뿐 아니라 진안군이 나아가길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위한 민·관·공 협의체 간담회

진안군은 지난 25일 관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첫 번째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군은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진안군 민(民)·관(官)·공(公) 협의체'를 구성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민간 기관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진안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안군지부,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진안연장산업단지 협의회, 홍산한방농공단

지 협의회, 진안군 농상공인연합회, 농협은행 진안군지부, 전북은행 진안지점 이상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진안군(官)과 전북신용보증재단(公)이 함께 참석해 지역 경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진안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계획, 지원제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조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협의·협력 구성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내 유관 기관 간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의회, 4대 폭력 부패방지 교육 실시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24일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양성평등한 성인지 가치관을 함양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방 전문 강사인 광양YWCA 이사 김양임 강사의 강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강홍성 강사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조직 풍토, 건전한 성 의식 조성에 온 힘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광대 행정학과 장수 현장체험 방문 견학

장수군은 지난 25일 원광대 행정학과(교수 이동기)와 협업을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44명이 장수군을 방문해 현장체험 방문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견학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의 열대과일 재배시설, 장수목장, 가야역사박물관 관람 등 장수군의 다양한 시설 및 문화역사 관광지를 방문 체험하며 다채롭게 진행됐다.

학생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열대과일 재배시설을 통해 장수군의 농업기술을 견학했고, 장수목장을 돌아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가야역사박물관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내 참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현장학습에는 최훈식 군수가 참석해 장수군 비전에 대해 특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미래의 공직 후배들에게 전반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